

## 코로나19에 대중보다 공유교통 '인기'

지하철·버스 대신 따릉이·나눔카 이용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시민들이 지하철과 버스 대신 따릉이, 나눔카와 같은 공유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통행 변화, 그리고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서울 교통정책방향'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한 3월 첫째 주 서울지하철과 버스 이용자(일평균) 수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5.1%, 27.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택시 이용자 역시 33.9% 줄었다. 반면 이 기간에 따릉이와 나눔카 이용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3.3%, 29.5% 증가했다.

따릉이의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대여 건수는 524만7000건으로 작년 동기(334만1000건)보다 약 57% 늘었다.

연구원은 "한정된 대중교통 인프라 속에서 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따릉이 방역 속도 모습. /서울시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중교통 혼잡도를 기존의 150%에서 100~130%로 줄이고,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기업체의 비대면 업무 방식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다.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이번에 새롭게 가능성을 확인한 공유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보행공간과 함께 자전거도로,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차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상계·금호동 재개발 밀그림 마련

# 성냥갑 아파트 벗어나 건축 혁신

상계주공5단지  
최고 35층 998가구 단지 조성

금호동3가 1번지  
공원·보행도로 등 4개 원칙 적용

서울시는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지인 상계주공5단지와 금호동3가1번지 일대 재개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상계주공5단지는 소규모 블록 디자인, 주변 단지와 연결하는 도로 조성, 중정형과 고층 타워 결합, 불암산 조망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가변형 평면 적용을 빼대로 하는 밀그림을 내놨다. 민간 최초의 '친환경 제로에너지' 단지로 건물일체형 태양광, 전기차 전용주차장이 도입되며 재건축 이후 최고 35층에 998가구 단지로



상계주공5단지. /서울시

거듭난다.

금호동3가1번지 일대에는 주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획, 원 지형을 따라 공원 및 공공보행도로 조성, 열린 단지를 위한 작은 마을 만들기, 다양한 스카이라인 계획 등 4가지 원칙을 적용했다. 해당 부지에는 1400~1500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건물 최고 층수는 20층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구상을 노원구와 성동구에 통보해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토록 하고 연내 정비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친환경·혁신적인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는 목표로 시가 작년 3월 발표한 '도시·건축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가 정비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행정적으로 지원, 도시 전반의 경관과 역사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입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오금현대아파트,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신림1구역,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왕십리역 일대 등 총 5곳을 올해 상반기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 65세 이상 어르신께 마스크 5매 지급

내달 1일까지 각 자치구 순차 배송

서울시는 최근 방문판매업체와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65세 이상 시민에게 1인당 5매씩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감염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5세

이상(5월 31일 기준) 152만2550명이 마스크를 받게 된다. 시는 "해외 수입으로 미리 확보해둔 덴탈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성능시험을 거친 제품이다"고 설명했다.

마스크는 7월 1일까지 각 자치구에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구는 동주민센터, 통·반장 등을 통해 마스크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수수료 2%이하... '제로배달 유니온' 출범

서울시 제로페이·배달앱 결합  
페이코, 멀치배달, 떡깨비 등 참여

서울시가 제로페이와 민간 중소기업들의 배달앱을 결합한 '제로배달 유니온'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25일 제로페이 가맹점 인프라를 민간 앱에 제공하고 민간 앱은 낮은 배달 수수료로 호응하는 제로배달 유니온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제로배달 유니온에는 페이코, 멀치배달, 만나플래닛, 떡깨비, 배달독립0815, 놀장, 로마켓, 주피드, 핑동, 스마트오더2.0 등 10개 배달앱이 참여한다.

이들은 앱 내 결제수단으로 제로페이가 기반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 수수료는 2% 이하로 유지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들의 가맹점 확보를 돕기 위해 시내 제로페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10개 민간 배달사와 함께 지역화폐 전용 새 배달앱 서비스 육성방안 발표를 비롯한 제로배달 유니온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가맹점 약 25만개를 대상으로 제로배달 유니온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로페이 가맹점주는 10개 업체 중 자신이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해 낮은 수수료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배달앱 업체는 큰 비용 없이 소비자와 가맹점을 일시에 확보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마케팅 비용과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소상공인 업체와 상생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새로운 배달앱을 만들거나 공공 재원으로 수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간 타 지자체가 추진해온 공공배달앱과는 차별화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11개 시내버스회사 경영실태 점검

회계분야 실태·채용비리 집중 파악

서울시는 지난 22일부터 시내버스회사 11곳을 대상으로 특별 경영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회계 분야 정기 실태점검 대상 회사와 채용 비리 문제가 제기되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회사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시는 회계·인사·노동 분야에 대한 특별 점검을 반기별로 10개 내외의 회사를 대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

라 전체 시내버스회사 65곳이 3년에 한번꼴로 실태 점검을 받게 된다.

회계 분야에서는 과다 경비 지출, 기업회계기준 위반, 인건비 집행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사·노동 분야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 52시간 준수 여부를 살핀다.

시 관계자는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고발·환수와 같은 강력한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서울미술관' 국제지명 설계공모

서울시 선정심사 비대면 진행

공공미술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서울 서남권에 '서서울미술관'이 생긴다.

서울시는 오는 2023년까지 금천구에 '서서울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국내·외 건축가가 참여하는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운영위원회를 거쳐 지명한 5개팀(해외 2팀·국내 3팀)이 참여한다.

서서울미술관은 서남권 최초의 공공미술관으로,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금천구에 조성된다. 미술관은 연면적 7000㎡ 규모로 금천구청 옆 금나래중앙공원에 들어선다.

미술관 설계 공모에는 중국 출신의

리우 지아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는 로저 리베, 힐튼 남해 골프&리조트를 설계한 민성진, 서울시 건축상 대상 수상자인 김찬중,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구상한 최욱 등 저명한 건축가들이 뛰어 들었다.

시는 26일 최종 당선작 선정 심사를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진행한다. 심사 전 과정은 시민 누구나 유튜브 '도시공간개선타'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서서울미술관이 '공원 속 미술관'이라는 특징을 고려해 시는 하버드 GSD 대학 조경학 교수인 니얼 커크우드 교수를 초빙, 조경 분야에 대한 심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 코로나19에 교통량 '뚝' 서울 대기 질 개선효과

서울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3월 서울의 대기 질이 이전보다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관내 850곳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도시데이터 센서(S-DoT)로 측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량 정체가 일어나는 지역 52곳의 1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등급에서 3월 '보통' 등급으로 나아졌다.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지역 대기 질도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올해 3월 서울의 전체 교통량은 18만5868대로 전년 동기 20만6094대와 비교해 9.81% 감소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26일 (금)  
음력 : 5월 6일

수도권 날씨  
**27 ~ 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12 | 해질 / 19:57

연천 20/28, 동두천 20/28, 가평 20/28, 양평 21/28, 용인 21/26, 평택 21/28, 수원 21/26, 인천 20/25, 서울 20/27, 파주 20/28, 백령도 18/2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